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한발짝’

• 유엔기념공원 • 부경대 워커하우스 • 우암동 소막사

## 문화재청 ‘잠정 목록’ 올라… 2025년 최종 등재

유엔기념공원, 부경대 워커하우스, 우암동 소막사 등 남구의 근대 문화유산 3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문화재청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6·25 당시 피란수도 부산의 근대 건축·문화유산 8곳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신청 잠정 목록에 최근 등재했다.

잠재목록에 선정된 유산은 이들 남구 지역 유산을 외에 서구의 임시수도대통령관저(경무대)·부산임시수도청부청사(임시중앙청)와 중구의 부산지방기상청(국립중앙관상대)·근대역사관(미국대사관)·부산항제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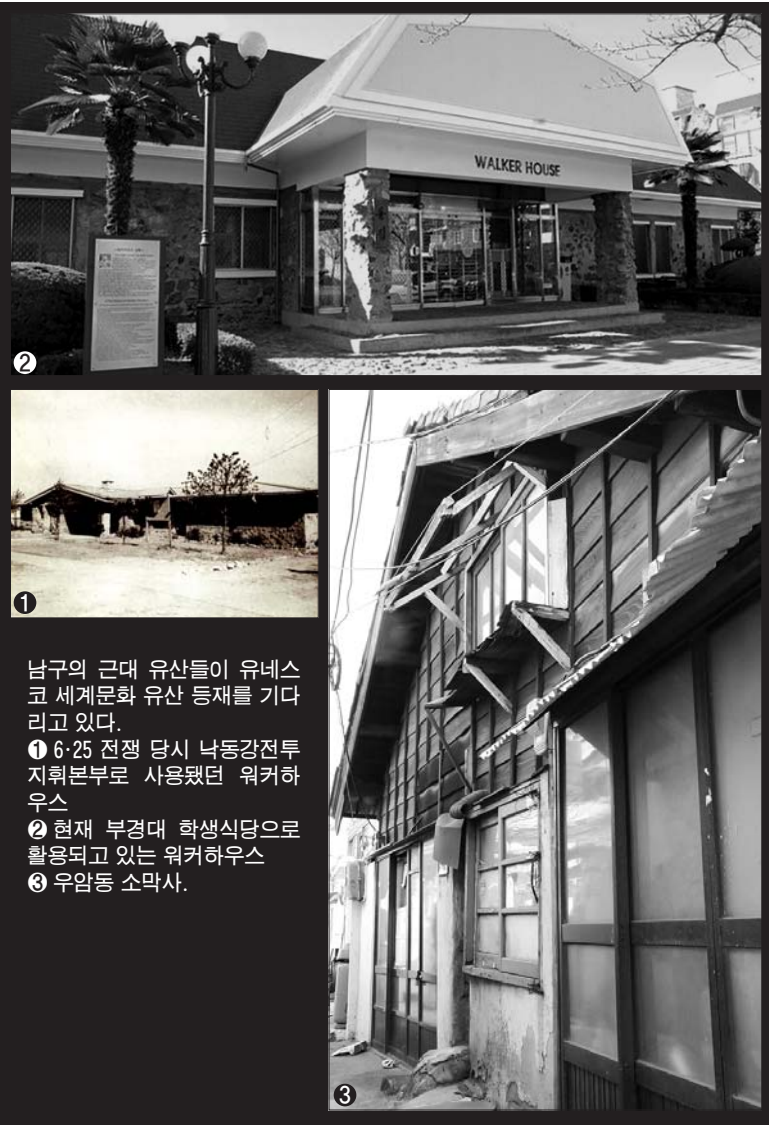
두 그리고 부산진구의 부산시민공원(미 하얏리야부대) 등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신청의 사전 작업인 잠정목록에 근대 유산이 등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피란 시절의 주거지로 활용된 우암동 소막사는 문화재청이 피란민 생활상을 보여주는 유산 1점과 종합 보존관리계획을 추가하라는 조건에 따라 상반기 중에 잠정목록에 추가될 전망이다. 유엔기념공원은 세계 유일의 유엔군 묘지이자 유엔군이 파견된 최초의 전쟁이라는 상징성이 있다. 부경대 학생지원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워커하우스는 당시 미8군

사령관이었던 월터 워커 장군과 참모들이 낙동강전투를 지휘한 지휘소 본부로 사용됐다.

부산시는 이들 유산들을 2021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우선 등재목록에 포함시키고 202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최종 등재한다는 계획을 잡고 있다.

한편 시는 2015년 광복 70주년, 6·25발발 65주년을 맞아 피란수도로서의 부산의 위상을 재조명하기 위해 피란수도 부산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해왔다. 부산 전역의 피란 관련 건축물과 문화유산을 전수 조사해 이 가운데 세계유산으로 가치가 높다고 판단된 14개를 간추려 지난 2016년 12월 문화재청에 제출했다.



남구의 근대 유산들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기다리고 있다.  
① 6·25 전쟁 당시 낙동강전투 지휘본부로 사용됐던 워커하우스  
② 현재 부경대 학생식당으로 활용되고 있는 워커하우스  
③ 우암동 소막사.

## 유엔평화문화특구 ‘다크 투어리즘’ 코스 각광

아픈 역사를 되돌아보는 다크 투어리즘이 새로운 관광패턴으로 자리를 잡는 가운데 유엔평화문화특구를 걸어서 둘러보는 코스가 각광받고 있다.

최근 부산시에서 발간한 ‘부산속 들어다보기 속속들이 부산투어’ 책자에 화해의 길이란 부제로 ‘국립일제

강제동원역사관~유엔평화기념관~유엔기념공원~부산박물관~유엔조각공원~워커하우스(부경대)~문화박물관’ 코스가 소개됐다. 이 구간은 남구 내 7개 시설·기관(이동거리 4km)을 도보로 투어한다. 도시철도 못꿀여 1번 출구에서 남구 9번 마을 버스를 타면 일제강제동원역사관·유

## “740여 공무원들과 남구 발전 동참”

### 제32대 이범철 부구청장 취임

이범철 제32대 부구청장이 지난 1일 취임해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이 부구청장은 1996년 2회 지방고등고시에 합격, 이듬해인 97년 4월 사무관으로 남구에 첫 부임해 6년간 근무했다. 남구에서 민방위재단관리과장, 대원6동장, 문화공보과장, 지역경제과장을 거친 뒤 2003년 부산시로 자리를 옮겨 금융중심지기획단장, 해양정책과장, 기획담당관, 인재개발원장, 시정혁신본부장 등 주요 보직을 맡았다.

특히 금융중심지기획단장 시절 부산 금융중심지구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고



시정혁신본부장 때는 정책콘서트와 정책박람회를 추진해 시민과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치는 등 시정혁신 분야에 공적이

인정돼 정부로부터 2017년 하반기 홍조근정훈장을 수여받았다.

이 부구청장은 취임식에서 “첫 근무인 남구로 돌아와 기쁜 동시에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740여 남구 공무원들과 함께 중단 없는 남구 발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5만원

#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은 10만원까지 가능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한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지난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따라 공직자들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 가액 범위가 현재 3만원, 5만원, 10만원→3만원, 5만원, 5만원으로 조정됐다. 음식물은 3만원과 선물은 5만원으

로 상한액을 그대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은 한도를 10만원으로 조정했다. 하지만 공직자들이 받는 축의금·조의금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내렸다. 다만, 화환·조화의 경우 현재 가액 범위인 10만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또 이번엔 선물 범위에서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제외됐다.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 용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해 직무와 관련한 공직자 등에게 원

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범위에서 제외됐다.

다만, 법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기업 임직원이나 일반 시민 등에게 주는 상품권, 공공기관이 상품권을 구입해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가 격려·사기진작 등을 위해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상품권은 금액에 상관없이 가능하다. 또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 등에게는 100만원까지 상품권 선물이 가능하며, 그 외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도 상품권을 선물로 제공할 수 있다.

구분	기 준		변 경
	음식(식사)	3만원	3만원
가액 범위	선 물	5만원	5만원(농수산물·가공품 10만원)
	경조사비	10만원	5만원(화환·조화 10만원)
선물 범위		상품권 등 유가증권 포함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
외부 강·의 등 상한액	공무원	직급별 구분 있음(시간당 20~50만원)	직급별 구분 없음(시간당 40만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직급별 구분 있음(시간당 20~50만원)	직급별 구분 없음(시간당 40만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공무원과 동일(시간당 20~50만원)	사립학교 교직원과 동일(시간당 100만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 동일(시간당 20~40만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 동일(시간당 20~40만원)	일반 언론사 임직원과 동일(시간당 100만원)
외부강의 등 보양 신고 기간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제출		매 년	신규채용 시



## 2018년도 구·동정설명회 1월 23~31일 개최

한 해의 구정계획을 알리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2018년도 구·동정설명회가 23일부터 31일까지 각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립니다.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간: 2018. 1. 23.(화)~1. 31.(수)

일자	오 전	오 후(1차)	오 후(2차)
1월 23일(화)	대원1동	대원3동	
1월 24일(수)	대원4동	대원6동	대원5동
1월 25일(목)	문현1동	문현2동	문현3동
1월 26일(금)	문현4동	용호1동	용호2동
1월 30일(화)	용호3동		
(10:00~11:20)	용호4동	용당동	
1월 31일(수)	우암동	감만동	감만2동

## 이달의 친절공무원

### 이효린 통합사례관리사



해드리고 싶음.

△본인이 매우 힘들 때 크나큰 도움을 줬던 간호사에게 감사하고 몸이 불편해 걷지도 못하고 작년 9월부터 집에만 있었는데 병원에서 무료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나가 돌아다닐 수 있게 되어 너무 고마움.

△심신의 고달픔과 공립으로 상심과 좌절 속에 건강마저 잃어가고 있을 때에 상당기간 지속적인 관심과 어려, 성심을 다한 상담으로 희망의 용기를 북돋아주고 치과 치료에 도움을 줬던 그 고마움을 전하며 칭찬드립니다.

## 2018년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7만원으로 확대

2월1일부터 주민센터·온라인(www.mnuri.kr) 동시 신청·발급

# 우암동 소막사 ‘꼭 지켜야할 문화유산’ 뽐혀

한국내셔널트러스트 선정 “근현대사 녹아있는 건축물”

우암동 소막사가 한국내셔널트러스트의 ‘2017년 꼭 지켜야 할 자연·문화유산’에 뽑혔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와 한국환경기자클럽이 공동주최한 제15회 ‘이곳만은 꼭 지키자!’ 시민공모전에서 소막사를 포함한 국내 8곳의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이 지난 연말 선정됐다. ‘이곳만은 꼭 지키자!’는 보전 가치가 높지만 훼손위기에 처한 자연·문화유산을 대상으로 시민이 추천하고 전문가들이 선정하는 시민운동으로 현재까지 110여 개의 자연·문화유산을 지정했다.

1909년부터 세워진 우암동의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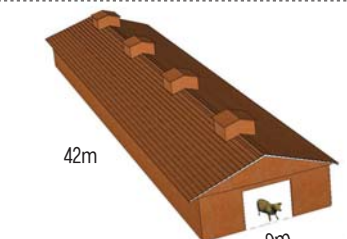
(牛)막사 건축물은 도시생활이 변모되는 현장에서 일제강점기 소의 공출을 위한 축사로 사용되었다. 이후 해방과 6·25전쟁 때는 피란민의 임시숙소로, 산업화 시기에는 노동자들의 고단한 삶의 거처로 이용된 곳이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단일 공간에서 각 시기별로 각기 다른 시대상이 투영된 소막사의 건축적, 역사(생활)적 가치에 주목했다.

현재 남구청은 소막사 한 동을 매입해 일형보존공간, 피란민 거주정착기 전시공간, 피란민 생활사 외부 전시 및 커뮤니티공간 등으로 보존·활용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소막사의 비밀

소막사는 말 그대로 소가 거주하는 막사를 뜻한다. 소막사는 폭 9m, 길이 42m의 목조 건물로 한 동에 120마리 정도가 머물렀다. 일본으로의 소 이송이 증가하면서 우암동 비탈에 이런 소막사 19개 동이 들어서 한때 거대한 ‘소마을’을 이뤘다. 일본으로 소를 보내던 거점인 당시 국내에 6곳이 있었는데 그 중 우암동이 규모가 가장 컸다.

일본은 서기 675년 천황 탄두가 가축도살을 금지하면서 1200년간 고



기를 먹지 못했다. 그러다 19세기 중엽에서야 메이지유신을 거치면서 비로소 육식급지령이 풀렸다. 자국내에서 육식 수요를 충당할 수 없게 되자 조선과 중국에서 비싼 값에 소를 사들였고 우암동에 소막사가 생겨났다.

## 2월 14일 ‘안중근 정신’ 남구서 올린다

제1회 도마안중근의날 기념식·안성녀 여사 서훈 추극 결의

### 유엔평화기념관 강당

(사)안중근의사교육문화재단 및 (사)안중근정신문화협회 주관으로 제1회 ‘2.14 도마안중근의날’ 제정 기념행사와 안성녀 여사 수훈자 추극 결의대회가 오는 2월 14일 오후2시 유엔평화기념관 3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2월 14일은 1910년 하얼빈 의거를

일으킨 안 의사가 일본 법정으로부터 사형선고를 받은 날이다. 안성녀 여사는 안 의사의 여동생으로 일제의 탄압을 피해 만주로 망명해 오랜 세월 독립운동에 투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묘소가 용호동 백운포 일원에 40여 년째 방치되어 있다. ☎607-4315

## 사진으로 보는 남구 소식



오륙도스카이워크 해맞이 2018년 무술년 새해 첫날 오륙도스카이워크 광장 일원에서 주민 1만5000여명이 모여 한해의 소망을 기원하는 해맞이 행사를 열었다.



오륙도여성합창단 찾아가는 음악회 남구 오륙도여성합창단은 지난 12월 26일 연말을 맞아 인창대연요양병원에서 환우들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를 열었다.



남구 청년창조발전소 개소 청년의 문화·예술·산업·교육학습·창업 컨트츠 생산을 돕기 위한 남구 청년창조발전소(부경대 정문 맞은편)가 지난해 12월 27일 개소식을 가졌다.

## 안전띠착용률 99.75% 전국 1위

남구가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2017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에서 자치구 중 전국 10위, 부산 1위를 차지했다.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남구는 100점 만점에 87.40점(전국10위)을 받아 2016년도 85.98점(전국31위)에서 21위나 뛰어 올랐다. 교통문화지수는 매년 전국 시·군·구 지체제를 대상으로 운전행태, 교통안전, 보행행태 3개 영역, 15개 조사항목을 객관적으로 측정해 수치화한 지표이다.

남구는 운전행태분야에서 안전띠 착용률이(99.75%) 전국1위를 차지해 운전자들의 높은 교통의식을 보여줬다. 교통안전분야에서 지자체교통안전노력도는 2016년 6.94점에서 2017년 8.13점으로 대폭 향상돼 지난해 구에서 실시한 각종 교통안전교육 및 캠페인 실시와 교통사고 방지시설 설치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남구는 올해 관내 전역의 4차선 이상 간선로에 차선분리대와 횡단보도 잔여시간 표시기를 집중 설치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률 제로 달성 등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힘을 여정이다. ☎607-4552